



원정 종조탄신 기념법회 봉행

“밀교중흥으로 원정 종조 유훈 되살려야”



▲1월 29일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정 종조탄신 기념법회.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및 전국사원에서 원정 종조탄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경인교구 사원의 스승과 교도임원진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 훈화장공, 고유문 낭독, 유가삼밀, 탄신 및 행장소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원정 대승사 탄신일을 맞아 대승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현재정화의 사명감과 불퇴전의 정진으로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을 거두어 총지종 입교개종 정신을 만방에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또 “우리 종단은 그 뛰어난 종지와 숭고한 참종이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화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점

이 없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종조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가치를 드높여야 하며 이것이 원정 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총지종은 지난해에 이어 종조탄신과 관련해 종조 육필원고 발간을 비롯한 각종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종조탄신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학술세미나 등 원정성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총지종은 종조 탄신관련 사업을 통해 포교활성화를 기하고 종단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중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새해 정진불공 원만 회향 회향일, 철야 용맹정진 불공도



▲총지종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각 사원에서 새해 정진불공을 봉행했다. 위로부터 부산 정각사, 서울 총지사, 대구 개천사 새해정진불공 모습.

불교총지종은 지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무자년 재난소멸과 소원상취발원 새해 정진불공을 봉행했다.

이와함께 회향일인 1월 13일 자성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 철야용맹정진기도불공도 열렸다.

전국 각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은 이번 무자년 새해 발원과 정진수행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일부 사원에서는 새해정진불공 후 주변

불우이웃들을 방문, 위로행사를 갖기도 했다.

새해 불공을 회향한 스승과 교도들은 “맑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새해불공은 총지종의 특별한 불공 행사로 보통 정월 첫째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일요일에 마치며 이 기간에는 다른 때의 불공과는 달리 불공에만 전념한다.

“동체대비심으로 중생구제 해야”

신년하례법회 및 스승 퇴임식 봉행



▲1월 17일 서울 총지사서 열린 신년하례법회.

불교총지종은 1월 17일 서울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년 신년하례법회와 퇴임스승 퇴임식을 봉행했다.

관 하례와 종령 및 승단 하례, 종령 신년법어, 퇴임스승 퇴임식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원정기념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현대는 상상 못할 만큼 빠른 변화의 시대”라며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으로 이기심과 진애심 등 마음의 병이 치성해 정신적 빈곤에 처해 있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우리는 부처님을 대행해서 법을 전하는 숭고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과 불이(不二) 사상으로 중생제도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창종이후 종

단이 반석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의 신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올 한 해에도 종단 번영과 교도가족들의 안녕 그리고 교화활성화를 위해 매진 하자”고 말했다.

한편 신년하례법회 직후 정정심, 안주화 스승 퇴임식과 은가사 수여식이 열렸다.

정정심 스승은 퇴임사에서 “한 평생 교화의 길을 회고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후배 스승님들은 중생의 복진이 되기 위해 전심전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조법설

불망어(不妄語)

감로수(甘露水)와 모든 독약 혀 가운데 모두 있다. 실어(實語)는 곧 감로수요 망어(妄語)는 곧 독약이라 독약에는 안 죽어도 망어에는 죽게 되니 만약 사람 망어하면 죽은 사람이라 한다. <정법염처경>

5면 퇴임스승 인터뷰

10면 만다라 불사 특집화보

12면 진안행자를 찾아서 / 만보사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 총기 37년 2월 20일 ~ 4월 8일

◆ 대 상: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총지종 전 사원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사 설

교도조직의 활성화

총지종이 창종한 지도 어느덧 3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사람의 나이로 비유하면 중년에 접어든 것이다. 중년은 젊은 시절의 방황과 절망, 질풍노도의 세파를 이겨내고 안정과 순항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종단 초기에는 행정, 교육, 제도, 조직,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미흡했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와 조직을 하나씩 보완하며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중년기를 맞이한 지금 교도들을 위한 조직과 체계면에서 아직 초창기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경인, 충청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네 곳에 지회를 두고 각 지회별 지회장을 선출하여 교도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몇 개의 지회를 제외하고 지회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도들간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고, 상부상조 정신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도조직을 체계화 해야 한다. 교도조직의 재정비와 체계화는 부처님 말씀의 흥포와 교화 활성화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교도조직의 체계화 중심은 사원이 되어야 한다. 교도조직은 초심자들에게는 불교교리를 가르치고, 기존 교도들에게는 봉사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교도들은 각 사원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 스승들은 인사이동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근하지만 교도들은 대부분 한 사원에서 평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사원과 교도들은 가족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과 지혜를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인연터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

승단 화합과 개혁

개혁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이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조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기 쉬운 관계에 있다. 속된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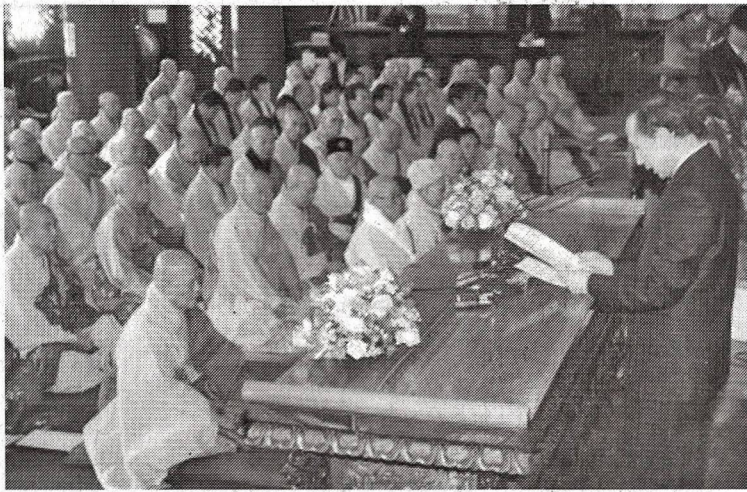
운 좋게 두 마리 토끼가 모두 한 방향으로 도망가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토끼가 사냥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달릴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현명한 사냥꾼은 어느 토끼가 더 살찐 놈인가를 보고 둘 중에 한 놈을 먼저 쫓을 것이다. 개혁과 화합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종단은 화합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하면서도 본격적인 개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종단이 현재 도태하느냐 중흥을 이루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종단의 모든 스승과 교도들은 우리 종단의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고 참회할 사람들은 참회하여 종단의 전 구성원들이 일심으로 화합하여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화합을 바탕으로 구성된 종단은 종단의 화합을 걱정할 필요 없이 종단개혁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합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개혁은 변모되고 발전된 종단을 창조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원송 통리원장 등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봉행 이명박 당선인, “불교문화 보전·세계화 실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무자년 신년하례 법회.

원송 통리원장 등 불교지도자들이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무자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환희로운 무자년 새 아침은 모두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며 “신년원단 찬물로 세수하면서 다진한 초심을 선달그믐까지 가져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요, 내 마음의 주인공도 역시 성성적적(惺惺寂寂)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항상 하심(下心)하는 자

새로 경세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매진하겠다”며 “불교의 동체대사상과 자리아타사상을 바탕으로 직무수행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삼세(三世)의 인연에서 열렸다”며 “신년하례 찬물로 세수하면서 다진한 초심을 선달그믐까지 가져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요, 내 마음의 주인공도 역시 성성적적(惺惺寂寂)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명

박 당선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각 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주요 신도단체 대표자,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이태봉 국회 정각회장,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정중복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윤원호 대통합민주신당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예정인 이명박 당선인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환담회에서 불교지도자들에게 불교문화보전과 불교 세계화 실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불교가 세계화 되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었다”며 “앞으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저도 불교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사찰에 다녔다”며 불교계에 대한 관심을 밝히기도 했다.

진언수행의 길

대승불교 밀교의 순차적인 구분이 없이 일시에 유입된 연유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화엄, 유식 뿐만 아니라 밀교와 정토, 미륵신앙 등도 함께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국 동진의 ‘담시(曇始)스님’의 고구려 전법이라든가, 중국 요동의 영탑사 석탑에 관한

한국의 밀교 전래

얘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불상의 그림이나 합장례하는 장면, 연꽃무늬, 깨달은 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림 등에서 이미 삼국시대에 밀교가 신앙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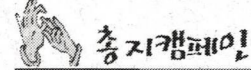
그 당시의 밀교가 어떠한 것인지의 분명한 지점이 없으나 복잡

한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교학보다는 현세이익과 양재초복적인 불교의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밀교가 보여 주는 최상층의 가르침이나 수행보다 하근기의 잡밀적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밀교 전래의 역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불교는 상당히 밀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될 당시에 이미 밀교적 요소와 신앙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밀교의 역사는 바로 삼국시대의 불교 초전(初傳)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밀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에서 흔적을 볼 수 있다.



세계가 놀란 자원봉사 행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모색했다.

그동안 피해현장 수습, 복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은 자원봉사단체 및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70여만명을 포함해 120여만명이 지원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정성껏 모아 보내준 성금 380여억원을 비롯해 재난관리기금 78억 원, 지원물품(방재복, 소모품, 생활품 등) 230여만점도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세계의 시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름같이 몰려든 뜨거운 봉사의 열정으로 시계명게 번져가는 절망을 기적처럼 푸른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불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일 것이다. 부

처님은 항상 더하지도 덜하지 않는 중도를 중요하게 강조하셨지만 아무리 차고 넘쳐도 결코 흠이 되거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가지 무량한 마음가짐인 것이다.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이 보여준 베푸는 마음, 서해안 일대 어민들의 믿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자비심에 찬 행동이요, 서로 이웃을 도와주고 상대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함께 감내하려는 그 행동이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인 것이다. 이런 마음과 실천이야말로 불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도리라 본다.

현재는 기상악화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잠시 봉사활동이 중지되었지만 각 종단과 종파는 이번 서해안 피해현장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에서 포교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월 17일 봉행된 정정심, 안주화 스승님 퇴임식 후 효강 종령예하, 원송 통리원장님과 기념촬영.

- 알림방 ▶ 11일부터 17일까지 월초 불공이 봉행됩니다.
- ▶ 20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상반기 49일 진호 국가 불공이 봉행됩니다.
- ▶ 총지사 김은숙 신정회장과 종보 편집팀은 1월 28일 성남 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28일 까지

개천사 무명씨 1.21 10,000	기로원 자선화 1.21 10,000	밀행사 석우성 1.28 20,000	수인사 지공 1.28 20,000	총지사 김성민 1.23 30,000
개천사 경 원 1.21 10,000	단음사 안 성 1.17 10,000	백월사 박인철 1.25 5,000	수인사 지희심 1.28 10,000	총지사 임동수 1.23 10,000
개천사 정법수 1.21 10,000	단음사 유가혜 1.17 10,000	백월사 박인국 1.25 5,000	실보사 이순옥 1.23 5,000	총지사 이인성 1.28 30,000
개천사 이희권 1.23 10,000	단음사 박주열 1.17 10,000	백월사 박삼순 1.28 10,000	실보사 송희준 1.23 10,000	트리원 지 정 1.21 20,000
개천사 김수향 1.25 10,000	단음사 박호열 1.17 10,000	법천사 시 정 1.21 10,000	실보사 무명씨 1.28 20,000	해정사 최영례 1.14 10,000
관성사 정정희 12.14 10,000	단음사 이규성 1.23 3,000	법천사 원만원 1.21 10,000	실지사 정우석 1.17 10,000	해정사 오혜민 1.23 10,000
관성사 해 정 1.21 10,000	덕화사 하순옥 1.28 10,000	법천사 박보조 1.21 5,000	실지사 정경자 1.25 5,000	해정사 서 령 1.23 10,000
관성사 정법계 1.21 10,000	만보사 배정임 1.14 10,000	벽룡사 원 당 1.16 10,000	실지사 손우성 1.28 10,000	해정사 혜원정 1.23 10,000
관성사 황성녀 1.25 10,000	만보사 지 정 1.21 10,000	벽룡사 묘삼해 1.16 10,000	운천사 박보경 1.23 10,000	화음사 류재환 1.17 10,000
관성사 이혜원 1.28 5,000	만보사 승호재 1.21 10,000	벽룡사 이희숙 1.22 10,000	운천사 이성미 1.25 50,000	화음사 자심관 1.23 10,000
관성사 박현숙 1.28 10,000	밀인사 이재호 1.16 10,000	삼밀사 원 송 1.28 10,000	정각사 김문수 1.7 10,000	화음사 수 현 1.23 10,000
관성사 김철우 1.28 10,000	밀인사 신대식 1.18 5,000	삼밀사 인봉계 1.28 10,000	정각사 변순개 1.17 5,000	화음사 이필순 1.23 10,000
관음사 신막심 12.14 10,000	밀인사 이혜성 1.18 5,000	삼밀사 김기영 1.28 20,000	정각사 박성선 1.22 30,000	화음사 박지웅 1.23 5,000
기로원 상지화 1.21 10,000	밀인사 신동희 1.18 5,000	선립사 심지장 1.17 10,000	정각사 신인복 1.28 500,000	화음사 박지홍 1.23 5,000
기로원 불멸심 1.21 10,000	밀인사 신동의 1.18 5,000	선립사 정복지 1.17 10,000	정각사 윤선자 1.28 10,000	화음사 강승훈 1.28 10,000
기로원 법정화 1.21 10,000	밀인사 이연수 1.28 10,000	선립사 대 덕 1.28 10,000	정각사 자비회 1.28 30,000	서울경인교구 1.24 1,000,000
기로원 대자행 1.21 10,000	밀인사 무명씨 1.28 10,000	성화사 우현정 1.22 10,000	정심사 오운보 1.28 5,000	
기로원 대 관 1.21 10,000	밀인사 정정희 1.28 5,000	성화사 우담바라 1.22 50,000	정심사 박옥란 1.28 20,000	
기로원 수증원 1.21 10,000	밀행사 교도일동 1.17 200,000	수인사 김봉기 1.28 10,000	지인사 허성동 1.21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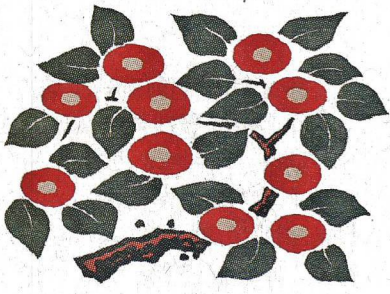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날마다 좋은 날



운문선사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대로 묻어 두는 것이 좋다.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을 테니 보름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는가?"
 운문선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운문선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스스로 만드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 월서 스님(봉국사 주지)

유형 지난 옷처럼

또다시 철이 바뀌어 옷장 속을 뒤져보면 유형 지난 옷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때 아무리 멋있었다 해도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만약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흡사 유형 지나버린 옷가지처럼 될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자기 자신은 즐겁고 풍족하게 살면서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스타니파타



이달의 명상

정신이 새로워지는 때

불자들이라면 으레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를 많이 갖는다. 아침저녁의 일과시간이 그렇고 경전을 대하는 시간이 그렇고 스님들의 설법을 듣는 때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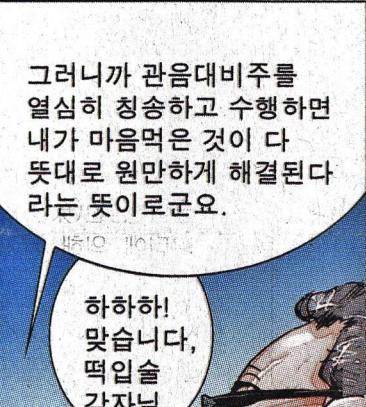
그 중에는 해마다 맞이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목적과 기간을 정한 가행 정진 때도 있다. 이런 온갖 기회에 우리의 자세는 더욱 가다듬어지고 정신은 새로워진다. 새해의 해살이 눈부시듯 우리의 자성광명은 더욱 찬란해지는 것이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말고

~전수경편 제24권~

글.그림/정수일



정수일 홈페이지-http://drawing-rahula.chpy.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 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구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인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 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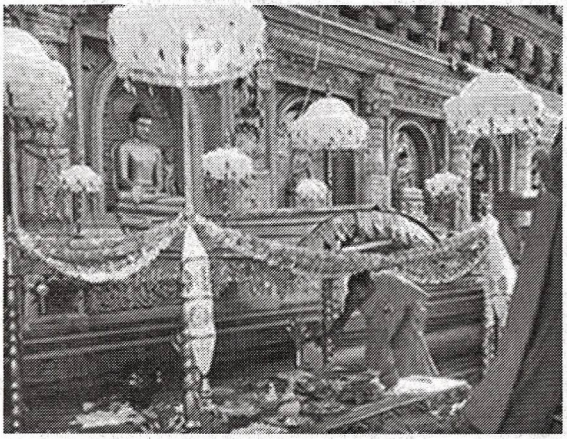
☎ 053-425-7910



1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2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데워주는 모습 3 무좀,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4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5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6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7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8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엎치통 등)

세계속의 불교 ⑦

깨달음의 장소 - 보디가야 (Bodh Gaya - Place of Enlightenment)



보디가야는 고타마 붓다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장소이다. 그곳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보아할 장소로 깨달음의 목적과 이해에 도움을 준다.

부처님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6년동안 고행을 수행하는 5명의 추종자와 함께 나이란다 강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고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은 부처님은 고행을 포기했다. 다섯 명의 추종자는 부처님께서 고행의 포기를 선언하자 부처님 혼자 남겨두고 사르나드를 향해 떠났다.

부처님은 세나니 마을로 이동하여 수자타라는 브라만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아들었다. 보리살타는 동쪽을 향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으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나의 육체가 무력해지고 나의 피부, 뼈, 살이 흩어지더라도 많은 시간동안 아무런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이 깊은 명상에 잠겨 깨달음을 증득하려 할 때 망상의 군주 마라가 찾아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할 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땅에 손을 대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동안 깨달음을 증득하게 도와준 증명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땅이 흔들리며 부처님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였다. 망상의 군주인 마라는 사악한 팔을 거두었다. 이러한 전경의 서사시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망상과 환상의 개입을 통해 발생하고 자비의 힘은 악마의 무기를 뜻으로 변화시키고, 마라와 그의 군대들을 멀리 물리쳤다.

마하보디의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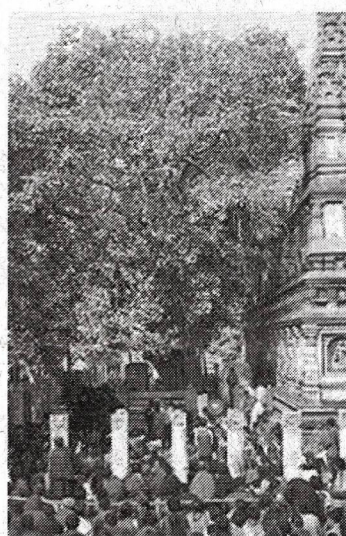
깨달음의 역사적 장소인 보디가야는 문서적인 기록은 없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보디가야를 방문하였으며 이곳은 불자들의 순례장소가 되었다. 깨달음을 증득한 후 250년경에 불교의 황제인 아소카왕은 이곳을 방문하여 마하보디 사원을 건축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사원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네 개의 기둥으로 천개를 지탱하는 다이아몬드 성전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 성전은 최상급으로 건축되었다고 하지만 역사적인 자료는 모호한 상태이다. 다른 몇 개의 사원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건축되었지만 마하보디 사원은 부처님의 유적을 존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되었다. 사원의 기초는 폭과 길이가 15미터이며, 높이는 52미터로 평탄한 대지 위에 뾰족한 탑이 솟아있는 가느다란 피라미드 형태로 세워져 있다. 네곳의 코너에 네 개의 탑이 웅장하게 솟아 있다. 모든 건축적 설계가 보는 이의 시각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졌다.

사원 안에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대한 불상이 있는데, 약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보리수 나무를 배경으로 부처님께서 동쪽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증득했던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보리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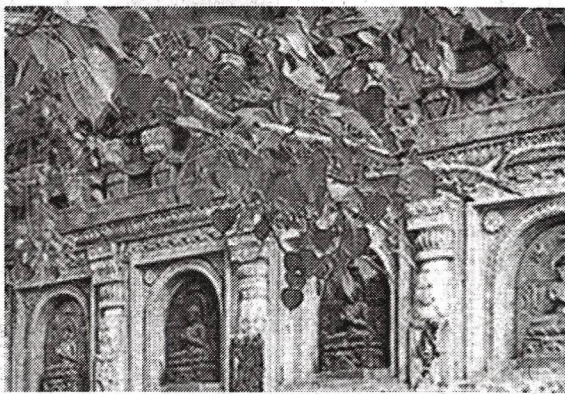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증득하신 후 7일동안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앉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명상을 하고 있었으며 2주 동안은 걷는 명상수행을 하였다. 진주의 발자국이란 찬크라마나는 마하보디사원의 북쪽의 복도에 9개의 연꽃으로 장식되어 건축되어 있다. 부처님은 몇 주동안 보리수나무아래에서 명상하였으며 이곳은 아니메사르차나라 불리우는 탑이 만들어져 있다.

마하보디 사원의 뒤쪽에 보리수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앉았던 나무이다. 현재의 보리수 나무는 원래 있었던 나무의 후손으로 보여진다. 아소카왕 부인은 아소카왕이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질투심이 유발하여 보리수 나무를 잘랐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리수 나무가 다시 자라났고 그 보리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보리수 나무가 신성시되고 있는데 그 나무의 씨앗은 보디가야의 보리수 나무에서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초의 보리수나무 씨앗은 BC 3세기 아소카왕의 딸 상가미타다가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 사원에 심었던 것으로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바즈라사나가 깨달음의 장소로 유명한 반면 보리수 나무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승가의 역사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순례자들은 사원과 유적지를 방문할 때 보리수 나무의 씨앗과 잎을 축복의 의미로 추구하려 한다.

보리수 나무와 마하보디 사원주위에는 0.2미터 높이로 네 개의 기둥을 가진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태와 물질면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BC1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모래 바위로 만들어져 있으며 네 마리의 말이 그려져 자비를 상징한다. 다른 하나는 AD300-600년 경으로 굽타왕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탑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디가야 국제적 불교성지로 발전



보디가야는 1953년 이후 불자들과 순례자들에게 국제적인 불교성지로 발전되었으며, 스리랑카, 태국, 버마, 티베트, 부탄, 일본의 불자들은 보디가야에 사원과 절을 건축하여 관람하기 편하도록 하였으며, 깨달음의 장소도 새로 단장하여 세계의 불자와 관광객들을 매료하고 있다.

추운계절인 12월과 3월에 보디가야를 방문한 사람들은 인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교 순례자들이 보디가야를 순례하는 물결과 사원주변에서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의식을 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보디가야는 잠재된 자성불을 밝히는 장소, 깨달음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모든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신성하고 전통적인 장소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bodhgaya.htm

총기동의보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주범... 겨울철 생리통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겨울의 시작과 동시에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넘겨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겨울은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긴 휴식을 취하고 각자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고마운 계절이지만 매년 겨울만 되면 고질적으로 심해지는 생리통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기도 하다.

육체적 여성성의 표시이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성스러운 신호이기도 한 월경은 모든 여성을 남성과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써 구분 지어주는 여성만의 절대특권이자 신이 내린 영혼의 선물이지만 사시사철 지독한 생리통을 달고 사는 여성들에게는 평생을 같이 가야 할 괴물 수 없는 영혼의 불청객이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을 정기적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적절한 진통제로 생활하는 방식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월경기간 전 혹은 기간 중 1-2일 동안 하복부와 허리에 경미한 통증을 동반한 생리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지만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설사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전신증상은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방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생리기간 전후에 출거나 습한 환경, 수영, 콘크리트 바닥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찬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둘째는 생리 중에 무리한 운동이나 위생이 청결하지 못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정체되어 생리배출이 곤란한 경우,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해서 기운이 부족한 경우나 출산 후 충분한 조리를 못해서 자궁이 메말라 생리통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생리통이 생길 수 있다.

생리통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이 달라지지만 자궁주변의 정체된 기혈의 흐름을 풀어주고 자궁 및 골반주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유지시키면서 어혈 덩어리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근본원리는 모든 치료의 핵심이다.

하지만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선블리 약을 통해서만 증상의 빠른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본인의 의지를 통한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치료와 더불어 병행되어야 만족할만한 치료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리통 예방법

- 차고 냉한 환경이나 수영과 같은 찬물에서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썩음, 황토 팩과 같은 찜질팩을 하루에 30분정도 시행한다.
- 반신욕, 좌훈, 족욕도 일주일에 두번정도 시행.
- 생리기간 중에는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충분히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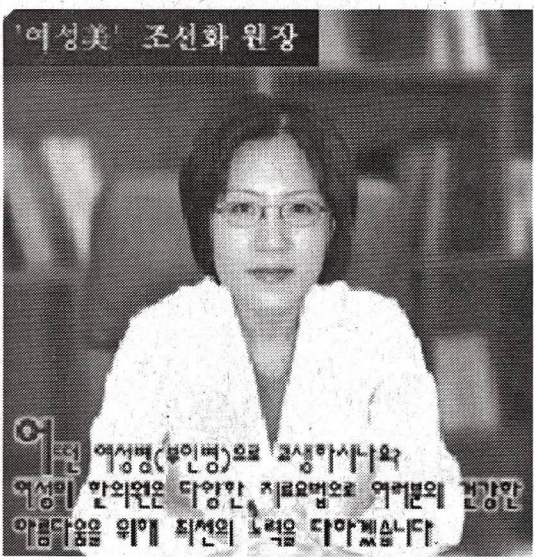
죽비소리

저전에 음행과 방일을 했더라도 뒤에 고쳐서 다시 범하지 않으면, 이 밝음이 시간을 비추어서 달에 윤위가 사라진 것과 같다.

- 양글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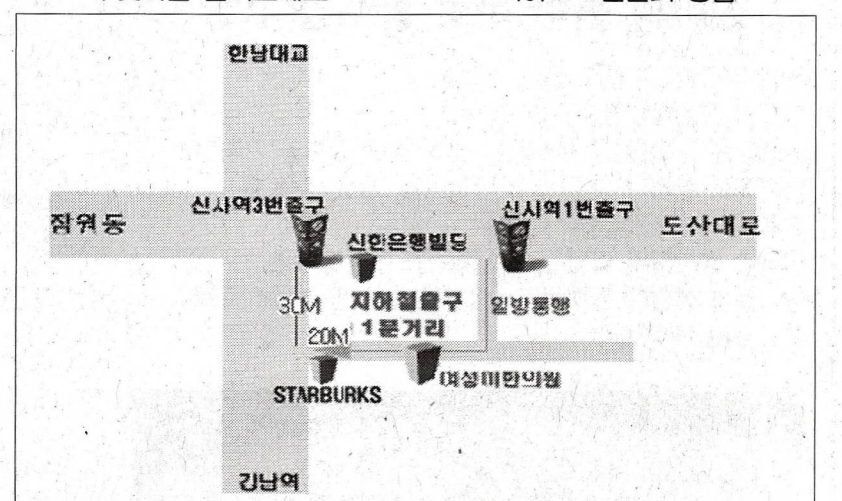
삼희의 공덕

여성美 한의원



자경단(子經丹) 증상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불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저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정정심(正定心) 기로 스승

[약력]
 ▲1980년 복해 서원당 ▲1982년 성화사 ▲1982년 지승급 인사 품수 ▲1986 함마급 대인사 품수 ▲1989 성화사 주교 ▲1989년 5대 중앙종의회 의원 ▲1991년 청정지 전수 품수 ▲1993년 6대 중앙종의회 의원 ▲1994년 정각사 주교 ▲1996년 밀인지 대전수 품수 ▲1997년 7대 중앙종의회 의원 ▲2001년 출세간의 지수 품수 ▲2001년 관음사 주교 ▲2004년 8대 중앙종의회 의원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퇴임하시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 덕에 불법을 전하며 이렇게 회향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교화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와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이 힘 안 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관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불법대로

일구웁심 교도와 그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열심히 불공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방편이라면 방편이지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면 보살들은

“불법 믿고 최선을 다하길”

지성을 다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교도 가족들이 제도되어 소원 성취도 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스승님께서 유독 많은 교도들을 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교화방편이 있습니까?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양심에 거적이 없고 진실하게 생활하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후배스승에게 당부하실 말씀
 그저 열심히 해 달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퇴임 스승 인터뷰

1월 17일 서울 총지사에서 정정심, 안주화 스승님의 퇴임식과 은가사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호 설법란에는 두 퇴임 스승님들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사님께서 큰 병환을 얻으셨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고 백약이 무효였을 때 불공하고 회사하여 씻은 듯이 쾌차하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승으로서의 금지와 보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과 안팎 모두가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퇴임하시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보람되고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순(隋順)하고 불공 열심히”

▶교화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와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병고로 고통받는 한 교도를 쓰거운 여름 날 사원에서 직접 죽을 해 주며 함께 불공하고 교화한 결과 병도 치유되고 신심있는 교도로 거듭났던 일입니다.

▶후배스승에게 당부하실 말씀
 첫째는 수순(隋順)이고 둘째는 불공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님들이 되는 것이지요.

▶종단에 당부하실 말씀
 없습니다. 어른들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기에... 다만 젊은 스승님



안주화(安住華) 기로 스승

들이 커 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약력]
 ▲1982년 수계사 ▲1984년 지승급 인사 품수 ▲1987년 함마급 대인사 품수 ▲1992년 청정지 전수 품수 ▲1997년 밀인지 대전수 품수 ▲2001년 수계사 주교 ▲2002년 지수 출세간위 품수



이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낼 인연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면 중생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보시를 하면서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보살은 부모와 원수를 대할 때에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여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곧 사랑(慈)의 성취다. 그러나 큰 사랑(大慈)은 아니다. 큰 사랑은 실로 이루기 어렵다. 끝없는 세월에 번뇌만 쌓고 선한 법을 닦지 않았으므로 하루 동안에 마음을 조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찢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번뇌의 굳기도 그와 같다. 하루 동안 마음을 거두어 산란치 않으려 해도 조복하기가 어렵다. 또 집에 있는 개는

고행과 바른 수행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계실 때였다. 발가숭이 이교도 카사파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온갖 고행을 싫어하고 고행자를 비방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카사파,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또 내 말을 바르게 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천안으로써 고행자가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봅니다. 이와 같이 고행자 중에는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통틀어 고행을 싫어하고 고행자를 비방할 수 있겠소.” 카사파는 말했다.

“부처님, 그러면 그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성취란 어떤 것입니까?”

“계행의 성취란 이런 것이요.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스스로 깨닫고 남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내어 출가합니다. 그래서 계율에 따라 행동을 삼가고 바른 행동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조그마한 허물도 두려워하고 감관을 다스려 바른 지혜를 갖춥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쥐지 않는 것을 갖지 않으며, 여자를 범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거나 거친 말을 쓰지 않으며 바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요. 또 선정의 성취란, 눈으로 사물을 볼 때라도 감관을 잘 지켜 그 모양에 팔리지 않고 가나 오나 앉으나 누울 때에도 항상 마음의 눈을 밝히어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이 머물러나. 새가 날개밖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듯이 몸을 가리는 옷과 배를 채우는 밥으로 만족하고, 나무 밑이나 동굴 속, 숲이나 묘지 등 한적한 곳을 찾아 고요히 앉소.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게으름과 의심을 버리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사람이 되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지혜의 성취란, 선정에 의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써 이 세상의 덧없음과 ‘나’라고 내세울 것 없음을 알며, 다섯 가지 신심을 얻고 네 가지 진리를 알아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했다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요.

나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문 고타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자후를 하지 만 그것은 신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한다 할지라도 만족시키거나 믿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념을 가지고 사자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고 만족시키며 믿게 합니다. 카사파여, 일찍이 라자가하의 영축산에서 당신과 같은 고행자 니그로다는 욕망을 없애는 최고 형식에 대해서 내게 물어 대답을 듣고 무척 기뻐한 일이 있소.”

이 가르침을 듣고 이교도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부지런히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남전 장부경전 8)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四無量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四無量心)을 수행해야 한다. 여래는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어떤 중생이 재산을 탐하면, 그를 위해 왕이라도 되어서 그의 요구대로 갖가지 물건을 주어 기쁘게 한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그를 편안하게 한다. 어떤 중생이 오욕락(五慾樂)을 탐하면 오욕락으로 그의 소원을 풀어준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그를 편안하게 한다. 또 어떤 중생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좋아하면, 그의 하인이 되어 시중을 들면서 마음에 들게 한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어떤 중생이 성질이 사나워 자기 고집만을 세우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몇 천 년이라도 그를 타이르고 달래어 마음을 누그러뜨린 뒤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들인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일을 끊게 되며, 기쁜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냄과 차별 두는 마음을 끊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산에 있는 사슴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 달아난다. 성내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기는 집 지키는 개와 같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기는 산에 있는 사슴 같으므로 조복하기 어렵다. 또 성내는 마음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지우기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은 물위에 쓴 글씨처럼 빨리 사라진다. 성내는 마음은 달아오른 불덩이 같고, 사랑하는 마음은 번갯불과 같다. 그러므로 조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이롭고 즐겁지 않은 일은 없애버린다. 이것이 대자(大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이로움과 즐거움을 준다. 이것이 대비(大悲)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기뻐한다. 이것이 대희(大喜)다. 보살은 모든 법을 볼 때에 평등한 마음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자기 기쁨을 남에게 준다. 이것이 대사(大捨)다. 이 네 가지 그지없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 된다.”

(열반경 범행품)

진리의 여율

“부처님이시여, 일품이라든가 공양을 받지 않는 일, 또는 쇠뿔을 먹고 나무껍질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며, 항상 서 있거나 하룻밤에 세 번씩 목욕을 하는 것 같은 고행은 사문과 바라문에게도 알맞은 일이라고 합니다.”

“카사파, 아무리 그와 같은 고행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계행과 선정과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사문이나 바라문과는 멀다. 화내지 않고 남을 해칠 생각이 없으며 자비심을 기르고 번뇌가 없어 현재에 깨달아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문이고 바라문이라고 할 것이요.”

“부처님, 사문이나 바라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움이 곧 고행을 닦는다는 뜻은 아니고, 고행쯤이야 물항아리를 나르는 하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화내지 않고 남을 해칠 생각이 없으며 자비심을 기르고 번뇌가 없어 현재에 깨달아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교도 카사파는 다시 물었다.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일의료원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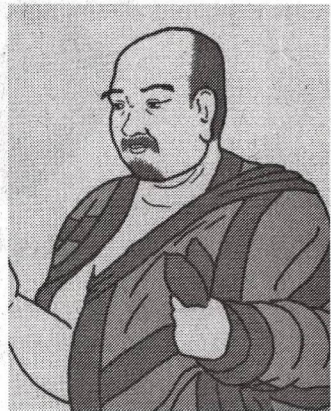


살기쉬운 밀교상식<18>

중국밀교 ② 중국의 밀교승

《대일경》을 번역한 선무의 삼장

선무의(善無畏) 삼장은 중국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밀교를 전했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슈바라카심하인데 동인도 오리스 지방의 왕자로 태어났다.



선무의 삼장

그의 부친은 불수왕(佛手王)이라고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숙부인 감로반왕(甘露飯王)의 자손으로 전해진다. 선무의 삼장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다방면에 재주가 뛰어나서 부왕은 여러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무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러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했다. 출가 후에는 인도의 유명한 나라 다사원에서 현교와 밀교를 배웠다. 그의 스승은 달마국다라고 하는 아사리인데 달마국다는 그에게 밀교를 전수해 줬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서 밀교를 알릴 것을 권유했다.

선무의는 스승의 말대로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서역을 거쳐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했다. 가는 도중에 불교도 뿐만 아니라 많은 이교도들과도 논쟁을 벌였지만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 선무의 삼장은 삼장법사라는 이름 그대로 현밀의 모든 교리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장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0을 넘긴 고령이었다.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 현종이 다스리던 시기로서 선무의삼장이 장안에 도착한 것은 서기 716년이었다. 현종은 선무의 삼장을 극진히 영접하여 궁중에 모셔다가 내도량(內道場)을 설치하고 국사(國師)의 예로서 받들었다. 선무의 삼장은 이듬해인 717년 자기가 가져온 범본 경전 가운데서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明持法)》1권을 서명사 보리원(西明寺 菩提院)에서 번역했다.

이후 선무의 삼장은 자신이 가져온 범본 경전이 칙명에 의하여 궁중에 보관됨에 따라 제자인 일행(一行)스님과 함께 범본 경전을 찾던 중 북인도에서 객사한 무행(無行)스님이 가져온 경전이 장안 화엄사에 비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제자인 일행과 함께 《대일경》을 번역했으며 해설서인 《대일경소(大日經疏)》를 남겼다.

《대일경》과 《대일경소》로 인해 중국에는 드디어 체계적인 중기밀교가 도입되었다. 선무의 삼장은 이 밖에도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羅經)》 《소바호동자경(蘇婆呼童子經)》 등을 번역했다. 또한 장안에 머무르는 동안 송악(嵩岳) 회선사(會禪師)와 불법에 대하여 토론한 것이 《무의삼장선요(無畏三藏禪要)》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선무의 삼장의 밀교적 수행관이 잘 나타나 있다.

선무의 삼장의 제자 가운데에는 일행스님 이외에도 현초(玄超), 의림(義林), 불가사의(不可思議)와 같은 신라 스님들이 있었다. 특히 현초 스님은

해과 스님에게 법을 전함으로써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공해에 까지 법맥을 이었다. 의림 스님도 순효(順曉)아사리에게 법을 전함으로써 일본 태밀(台密)의 개조인 최정(最澄)에게 법을 전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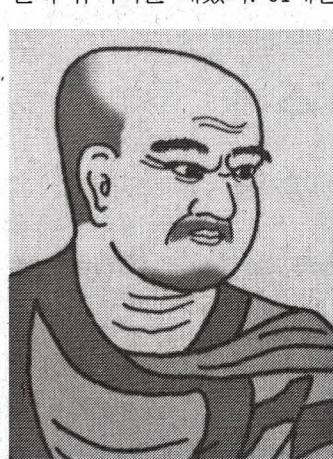
선무의 삼장은 735년 99세를 일기로 장안에서 입적했다.

《금강정경》을 번역한 금강지 삼장

금강지(金剛智) 삼장은 선무의 삼장보다 4년 늦은 719년에 스리랑카와 수마트라 등을 거쳐 남방해로를 이용하여 중국의 광주에 도착했다. 그는 중인도의 이사바바츠마왕의 셋째로 태어나 10세에 나란다 사원에서 적정지(寂靜智)를 스승으로 출가했다.

처음에는 서인도에서 성명학(聲明學; 문법학)을 배운 후 각지를 돌아다니며 대소승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 그러다가 20세 때 다시 나란다 사원에 돌아와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이후 6년간에 걸쳐서 대소승의 계율을 배우고 중관학파의 많은 논서들을 학습했으며 28세에 카필라바스투에서 승현논사(勝賢論師)로부터 3년에 걸쳐 유식학을 배웠다. 31세인 701년에는 남인도로



금강지 삼장

가서 용지보살(龍智菩薩)로부터 밀교를 배웠다.

금강지는 중국에 온 후 장안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관정(灌頂)을 베풀어 밀교와 인연을 맺게 했다. 관정이란 밀교의 법을 전하는 의식으로서 고대 인도의 왕이 즉위식 때 4개의 물을 길어와 정수리에 뿌리던 의식에서 유래한다.

또한 인도에서 가져 온 밀교경전과 의계를 한역하고 기우법이나 식재법 등을 실시하여 당 향실의 신뢰를 얻었다. 금강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불려들었는데 자은사(慈恩寺)의 의복(義福), 송양사(嵩陽寺)의 일행(一行), 그리고 불공(不空) 삼장 등이 그들이었다.

금강지는 《금강정유가중약출염송경(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4권을 번역함으로써 금강정경계의 경전을 가장 먼저 번역했다. 또한 금강지 삼장은 만다라의 관정도량을 건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정을 베풀어 중국민중들이 밀교에 친숙해지도록 했다. 그가 머물던 광복사(廣福寺)에 건립한 비로자나탑원은 자신이 모두 설계를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형태와 장엄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금강지 삼장은 20여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금강정경계통의 밀법을 중심으로 중국에 정통밀교를 전하기 위해 힘쓰다가 서기 741년 71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화령(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불교설화 <19>

때와 장소에 맞는 말

- 잡보장경(雜寶藏經)

옛날 사위성 안에 재물이 많은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차례대로 사문을 집으로 청해서 공양을 올리곤 했다. 사리불과 마하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들이 장자의 집에 갔을 때 장자에게는 매우 큰 경사가 겹쳤다. 장자의 아들들이 멀리 장사를 나갔다가 많은 돈과 보물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또 국왕은 장자에게 영토를 봉해 주었으며, 장자의 부인은 마침 아들을 순산했다. 이런 경사 속에 사리불과 마하리는 장자의 공양을 후하게 받았다. 공양이 끝나자 사리불은 장자 집안을 위해 축원을 해 주었다.

“오늘 좋은 과보를 받아 재물과 돈이 많이 모이게 되어 마음이 매우 기쁘고 즐겁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늘 신심을 내어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처럼 훗날에도 이러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 축원을 들은 장자는 마음이 너무도 기뻐서 아주 희귀한 천 두 필을 사리불에게 보시했다. 그러나 마하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마하리는 절에 돌아와서도 섭섭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사리불이 보시를 받은 것은 그 축원이 장자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축원을 외워야겠다.”

그래서 즉시 사리불에게 가서 간청을 했다.

“그 축원은 항상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가 있고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리불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마하리의 끈질긴 간청을 계속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리불은 그 축원을 마하리에게 일러주었다. 마하리는 그 축원을 달달 외웠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차례가 와서 축원을 외게 되면 아주 멋들어지게 외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 마침 마하리가 옷이 낡아져서 그 장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장자의 아들들이 멀리 장사하러 나갔다가 손해를 보고 많은 보물을 잃어버렸다. 장자의 부인 또한 관가의 일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었으면 또 태어난 아이도 죽고 없었다.

그러나 마하리는 공양이 끝나자 사리불에게 배운 축원 그대로 멋들어지게 외었다.

“오늘같이 훗날에도 이러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 축원을 듣고 있던 장자는 노발대발하여 마하리 사문을 두들겨 패고는 문

밖으로 내동댕이쳐다시피 하여 쫓아내었다.

갑자기 두들겨 맞고 쫓겨나온 마하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서 여기를 빠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픈 몸을 끌고 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왕을 위해 심어 놓은 껌발을 가로질러 갔던 것이다. 심어 놓은 모종이 다 부러졌다. 이때 그 껌발지기에 걸려 또다시 심한 채찍질을 당했다. 마하리는 거의 신음소리에 가깝게 껌발지기에 물었다.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처럼 때리는가?”

껌발지기는 그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마하리는 다시 터벅터벅 걸어 몇 리쯤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리를 베풀어

곳을 떠났다. 또 얼마 후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집을 만났다. 그는 상주의 말대로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머리까지 깨졌다.

그는 그곳을 겨우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비둘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물 가까이 앉아 있던 비둘기들이 놀라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 머리끝까지 화가 오른 사냥꾼은 막대기로 마구 두들겨 때렸다. 마하리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사냥꾼에게 용서를 빌었다.

“나는 곧은 길로 간다고 했는데 정성이 없어 그만 그물에 걸렸습시다. 너그러운 생각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사냥꾼이 말했다. “당신은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왜 침착하게 걸지 못하는가?”

마하리는 다시 그곳을 떠나 도중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빨래터 근처에 이르자 사냥꾼의 말이 생각나서 마치 고양이 걸음처럼 조심조심 걸으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빨래하던 사람들은 웃을 흠치러 온줄 알고 그를 잡아 또 두들겨

때렸다. 마하리는 그물에 걸렸다가 때맞은 이야기를 한 뒤 또 실수를 할까봐 조심조심 걷는 중이라고 해명을 하고 풀려났다. 마하리는 겨우 제타 절에 이르러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전일에 사리불이 했던 축원을 외다가 큰 불면을 당했다. 때를 맞아 거의 죽을 목숨을 겨우 건졌다.”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은 마하리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마하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는 설법을 하거나 축원을 할 때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그리고 보시의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도, 그리고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도 모두 때와 장소를 따라 해야 하느니라.”

무릇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방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를 중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최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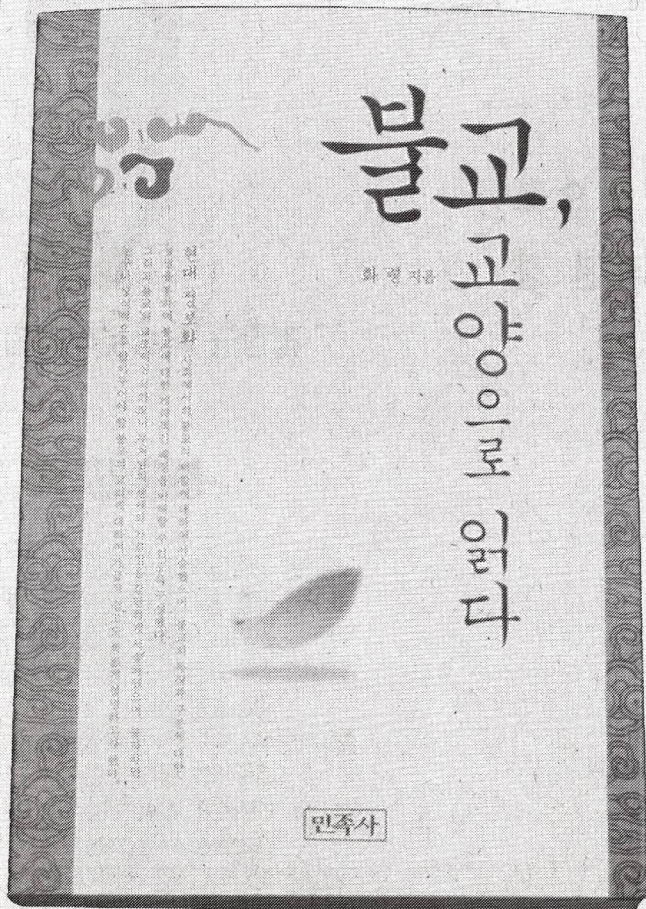


<불교, 교양으로 읽다> 출간안내

화령(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지음 / 민족사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간략히 서술하고 불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불교 교리에 대해 쉽고 폭넓게 설명했다.



총지문예

임진록을 읽고

선조 대왕은 총명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더니, 즉위한 지 10년쯤 되자 점점 방탕하여져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마침내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된다.

이전에 울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내세우며 국방을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하였고, 통신사 황윤길은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장차 큰일을 낼 인물이라고 보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은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져 서로 헐뜯으며 싸우느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임진년 4월13일, 풍신수길이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진에 상륙 하였으나 조정은 고작 수 천 명의 군사에 화살도 부족하고 구원병도 없는 처지였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해 오자 조정에서는 사세가 급함을 알고 임금을 모시고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다.

해전에서 전라 수사인 이순신이 거북선을 이끌고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육전에서는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 임금이 몽진하여 있는 평양

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다시 의주로 피난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이에 백성들은 격분하여 종묘 신주 단지를 메치고 행궁 안으로 달려들어 문짝을 부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유성룡을 통해 평양을 떠나지 않았다는 글을 써서 일단 백성들을 달래 놓은 뒤, 임금은 호위하는 군사 한 명 없이 신하 몇 명을 데리고 새벽에 의주로 떠나 버렸다. 곧 이어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는데, 김응서 장군이 왜장의 수청을 들고 있던 계월향이라는 기생의 도움을 받아 왜장의 목을 벤다.

은 나라가 왜적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문부, 곽재우, 서산대사, 권을 등이 의병을 모아 일어나고, 명나라에서 이여송이 10만의 원병을 이끌고 온다. 일반 백성들의 활약도 대단해서 논개, 사명당 등 기생, 승려들까지 구국의 충정을 가지고 왜적과의 싸움에 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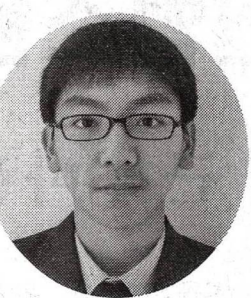
해전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데, 대신하여 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이 주책

빠져 군사를 돌보지 않게 되자 도망하는 군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왜적에게 대패 당하고 만다. 다시 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남은 배와 군사를 수습하고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쳐부수던 중에, 애석하게도 가슴에 적탄을 맞고 죽음을 맞이한다.

“임진록”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사명당이 적진에 들어가 답판을 벌이고 적장의 간교한 술책을 도술로써 분쇄하고 돌아오는 허구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이는 왜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복수심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켜 보고자 한 의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구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행패를 질책하는 것은 명나라 군사의 횡포에 대한 우리 민족의 증오심을 대변해 준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은 국문본과 한문본이 있는데, 한문본은 중국에 대한 사대적 입장에서 쓰여져 있다 한다. 내가 읽은 작품은 국문본이다. 책을 읽으면서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또한 요즘에는 TV 드라마에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책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더욱 더 오래 전일수록, 깊이 있게 알수록 흥미진진하다.



백성웅 동해중 2-4반

이 책에는 거의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가끔 거짓으로 꾸며 놓은 부분이나 인물이 등장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해 놓았으면 한다.

왜적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생각한다. 국력이 강하면 어떤 나라가 우리를 감히 함부로 여겼는가?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나라의 경제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의 이야기

간절한 소망과 참회의 새해불공

정심사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과 새해 불공과 칠정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저희 절 보살님 한 분은 칠일간의 새해 불공 기간에 매일 108배 절을 올리며 부처님 앞에 고해를 사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그 속에 뜨거운 눈물로써 참회 하는 뜻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는 진지하게 마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유관매일 하시면서도 짧은 시간을 내어 매일 매일 오후 시간에 와서 부처님께 간절한 불공 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족처럼 다정하고 웃음이 넘치는 정심사

- 정심사 향노심

부모마음

맑고 깨끗하신 老보살님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
법당에 매일 나오시는 아흔의 老보살님
그얼굴이 바로 부처의 모습이다.
당신소원이 무엇인지 어드낸 금공하다.

하지만 차마 그물음을 할수가 없다.
자식 손자 손녀 불공 이시겠지...
그연세에도 하루도 빠짐 없이
법당에 앉아 계시니
젊은 난 늘 고개 숙여진다.

칠순을 바라보는 따님과 함께
늘 그자리에 계시는 아흔의 老보살님..
고운인생 멋지게 마무리 하실수 있을 좋겠다고
헤드빌건 없고 그저 바라 볼수 밖에 없는것이
죄송하기만 하다.

부모 마음 어찌 다 알수 있을까.
그속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을까.
아흔의 부모는 칠순의 자식에게
무얼 바라겠는가...
그저 바라봐도 가슴찡하기만 하시겠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저 건강이 최고라고 무언중에 오고가는
그 눈빛을 볼때 나 마저 마음이 고요해지는걸 느낀다.

머칠 내 바로 앞에 앉으셨다.
세상 근심 걱정 다 놓으신 가장 편안한 얼굴이신것 같다.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 바라만봐도
너무나 고우시고 호수처럼 고요한 얼굴이시다.
그렇게 편안한 얼굴은 별로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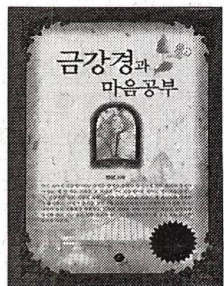
일주일동안 새해 불공을 드리기 위해 따님과 함께
절에 머무셨는데...
내일이면 가시기에 마음 한편에 서운한 생각 마저 든다.
언제 또 뵈 수 있을는지 기억조차 없는 이별이라 아쉬움만이 가득하다.

- 총지사 혜덕화

이달의 추천도서

금강경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 무한



불교출판문화협회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된 『반야심경과 마음공부』에 이어 5년여에 걸쳐 쓰인 또 하나의 생활 속 경전 실천서로, 법상스님은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출간 5년 만에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을 풀이하여 『금강경과 마음공부』를 출간했다. 인터넷에서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www.moktaksori.org)'를 개설하여 많은 이들에게 수행과 명상, 자연과 환경, 종교와 지혜를 주제로 한 진지한 깨침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깨달음의 빛

지명 지음/ 이른 아침

스님들의 바깥 안에는 무엇이 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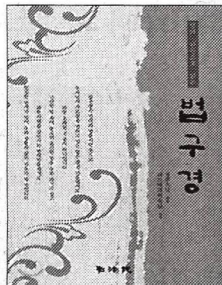


을까? 수행자의 그릇 '발우'와 '승물 18물' 이야기를 다룬 책. 세속적인 욕구를 떨쳐버리고 깨달음에 다가서고자 정진하는 불교 수행자들의 바깥에는 정진할 때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도구, 승물 18물이 담겨 있다. 스님들의 검박한 살림살이를 대표하는, 발우를 비롯한 이러한 승물들에서 우리는 수행자의 벗으로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운수행각의 구도적 여정을 살필 수 있다. 이 책은 오랜 수행을 몸소 실천하여 청정한 정진력이 깃들게 된 세계 각국 수행자들의 발우와 승물들을 통해, 무소유의 세계가 갖는 지혜와 가르침을 전한다.

법구경

정무 지음/ 흥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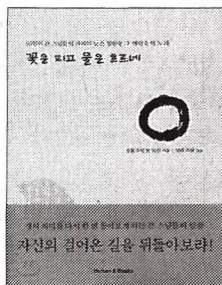
영어 한문으로 읽는『법구경』으로, 법구경은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많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



이다. 여러 가지 원시경전 가운데서 가장 교훈적인 훌륭한 언어만을 뽑아서 한데 엮어놓은 명구선집이다. 방대한 불교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석존의 진의를 전하는 주옥같은 문자로써 진중되고 있어서 옛 시대부터 가장 많이 애송되어 왔다. 여기에 수록한 영역판은 1966년 인도 대통령이었던 라드하크리슈난 박사가 1950년에 출판한 『Dham-mapada by S.Radgkrishnan』을 사용하였다.

꽃은 피고 물은 흐르네

성철 지음/ 휴먼 앤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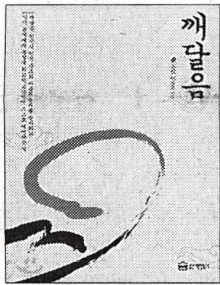
“삶과 죽음은 한조각 구름이다 물 흐르듯이 꽃이 피듯이 그냥 그렇게 욕심없이 한 세상을 살아가라”

큰 스님들의 열반송은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대중을 위해 남겨놓은 이 지상의 마지막 법문이다. 밤에도 놓지 않고 앉아서 하는 수행법인 좌좌불와를 20여년 동안 행한 성

철스님의 열반송, 제 8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암 스님의 열반송 등 93인의 큰 스님들의 마지막 노래가 수록되었다. 삶을 꾸는 치열한 두타 수행 끝에 남긴 주옥같은 이 노래들에는 재가인과 법인의 마음으로서 읽을 수 없는 높은 정신이 담겨져 있다. 스님의 짧은 약력도 실어 두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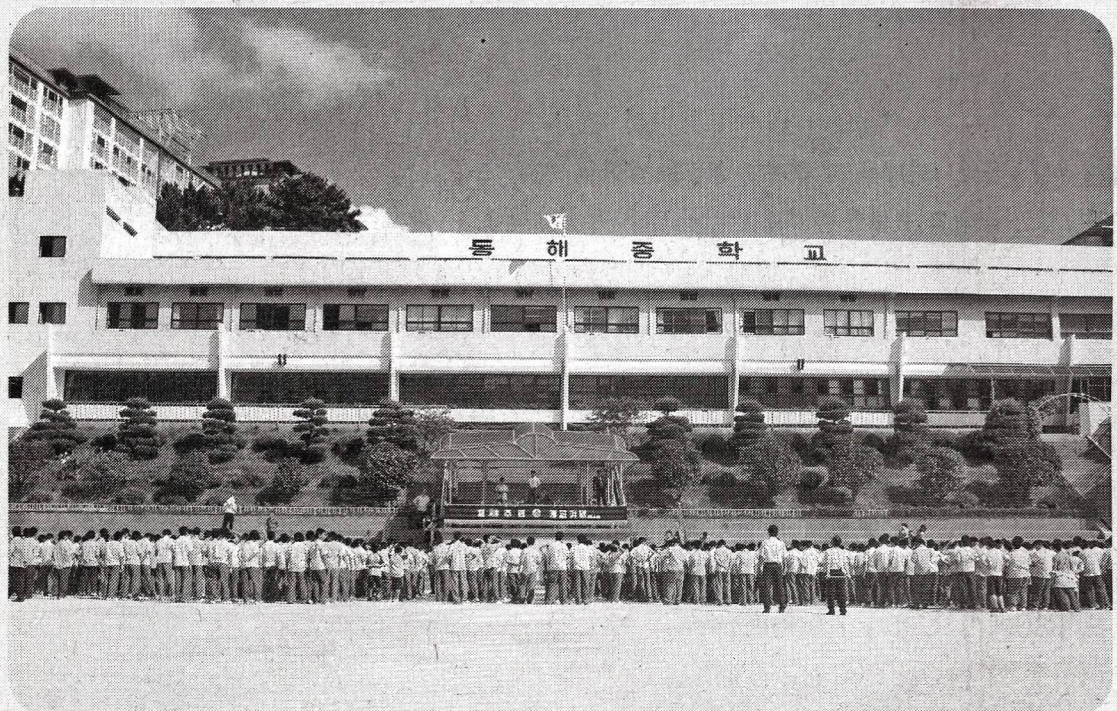
깨달음

이동호 지음/ 좋은책 만들기



2005년 겨울, 깨달음을 주제로 강의를 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삼매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다가 삼매에 대한 참회 후 저절로 삼매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 존재의 원초적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여정을 적고 있다. 먼저 저자는 제1장 의식, 무의식, 본래 마음의 성격, 제2장 산나의 사라짐과 깨어 있음의 드러남, 제3장 일상삼매와 무심삼매, 제4장 무심삼매의 방법 등 네 개의 장으로 마음 공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어나간다.

개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간다

트로트 가락에 불자 군심(軍心)도 쿵~짝

종자연, "판례 남겨 관련 법 근거 마련"

가릉빈가, 20일 호국 도술사 위문공연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 투표현장.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종자연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

유 및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 2월 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종자연은 이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종자연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종교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자연에 따르면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국민들에게 선거를 이유로 특정 종교 시설의

출입을 강제한 것은 종교자유 침해에 해당되며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행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한 것에 해당되므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거세지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자유-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남겨, 관련 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릉빈가 위문공연에서 군인들의 장기자랑.

군포교회는 불자 가수모임 가릉빈가 소리(대표 오해군)가 2008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 양구군의 21사단 호국 도술사에서 군장병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문공

연을 펼쳤다. 가릉빈가 소리는 2006년 11월부터 세광음반 소속 불자 가수들이 전국의 군법당을 찾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위문공연에서는 가릉빈가 소리 회원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군장병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7팀의 군장병들이 선보인 수준급 댄스, 차력, 풍토, 합창, 마술 등에 전문가들도 놀라

움을 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장병들의 실력은 가릉빈가 소리가 부대 측의 도움을 받아 장기자랑 참가자들에게 4박 5일의 달콤한 휴가증을 전달했을 정도. 일요법회와 함께 이어진 이날 위문공연에서는 1시간 30여 분간 환호성이 이어졌다.

가릉빈가 소리를 이끌고 있는 오해군 대표는 "각 부대 장병들이 선보이는 끼와 개인기 수준에 매일 무대에 오르고 있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군법당을 찾아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장병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문공연에는 공짜이저씨 김상경, '경포대추'를 부른 김경산, 썬라이트 김유령, 찬불가 가수 정향숙, 손영민, 이지영 등 가릉빈가 소리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강원도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는 군장병들과 함께 했다.

조계종 인수위 불교공약 간담회 개최

당선자 공약 실천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예상



조계종과 인수위원회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계종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자의 불교공약 실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1월 23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23일 서울 삼성동 인수위 사무실 2층 대회의실에서 불교공약 실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적,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문화재사찰위원회 위원장 현응(해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김영국 조계종총무원장 특보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 측에서는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원 총괄간사, 주호영 당선자대변인을 비롯해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 이주호 간사, 김대식 위원, 유인촌 자문위원, 김재원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식 위원(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교문화 꽃 피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오늘 의견을 토대로 종교문화 진흥 정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맹형규 간사는 "불교의 원용 사상으로 인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가 종교적 평화를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원용사상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열었다. 이어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마련으니, 불교계 현안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인수위가 불교계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당선자의 불교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인사말했다.

이후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불교 공약을 중심으로 실행 의견을 정리해 제안하는 자료집을 전달한 후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이 당선자의 불교공약을 중심으로 불교규제 법령개정과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할로 제도개선, 전통문화 계승발전, 불교문화 세계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새해 예산 2억 9210여만원 책정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제28차 정기총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어, 새해 예산을 2억921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신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가 주요 사업으로 통과시킨 것은 ▲2월-제29차 일본대회준비회의 및 30주년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일본 일한불교사무국) ▲4월-제29차 일본대회 최종회의 및 30주년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한국 한일불교사무국) ▲5월-제2회 여성부 만발공양(부산) ▲6월 9~13일-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제29차 대회(일본 조동종 중앙사) ▲10월-제4차 한일 양국 여성부교류대회(제주도) ▲상반기중-위령사업(일본 정토종 우천사) 등이다.

지관 스님은 "30주년 기념탑 건립과 관련해 2월중 실무자들이 협의할 때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인다면 공동으로 추진하겠지만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절의 운동적 요법 사례 통해 밝혀져

KBS '생로병사의 비밀'서 방영

몸을 낮추어 바다에 엎드리는 행위인 절은 불교의 오랜 수행법으로 절을 통해 부질없는 집착을 하나하나 비워 나간다. 이러한 절이 마음을 낮추는 인격 수양과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법으로도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현대인에게 절은 마음의 평화와 질병을 고쳐주는 웰빙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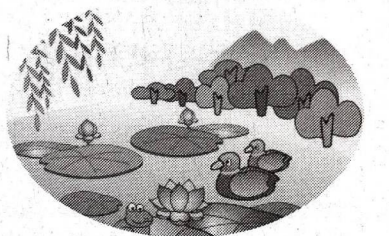
1월 15일 오후 10시부터 45분간 방송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뇌를 깨우는 108배'에서는 절이 종교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운동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혀냈다.

프로그램은 108배를 통해 질병을 치유한 사례를 소개하고 양의 학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절을 통한 생체적 변화와 다른 운동과의 운동효과 비교 등 절 운동의 특징과 효과, 인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세 가지 사례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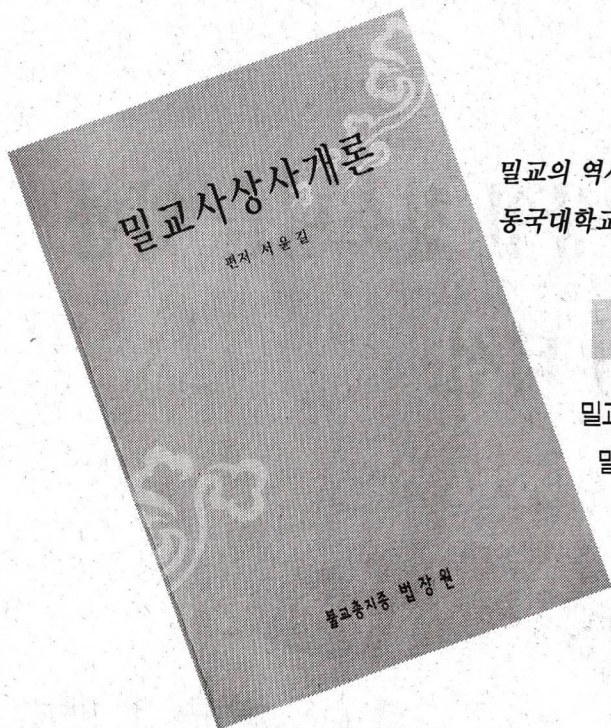
해 절의 운동적, 질병 치유적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고유선 숙명여대 대학원 체육학부 교수는 "서양의 유산소 운동은 운동 후 복식호흡의 효과를 이끌어 내지만, 절 운동은 운동 시 복식호흡이 함께 이뤄져 짧은 시간 동안 심신의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절을 행할 때 행해지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신의 안정도 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절 운동시 뇌파 및 심전도와 적외선 체열측정 등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절의 다양한 운동적 효과에 대해 낱알이 보여주었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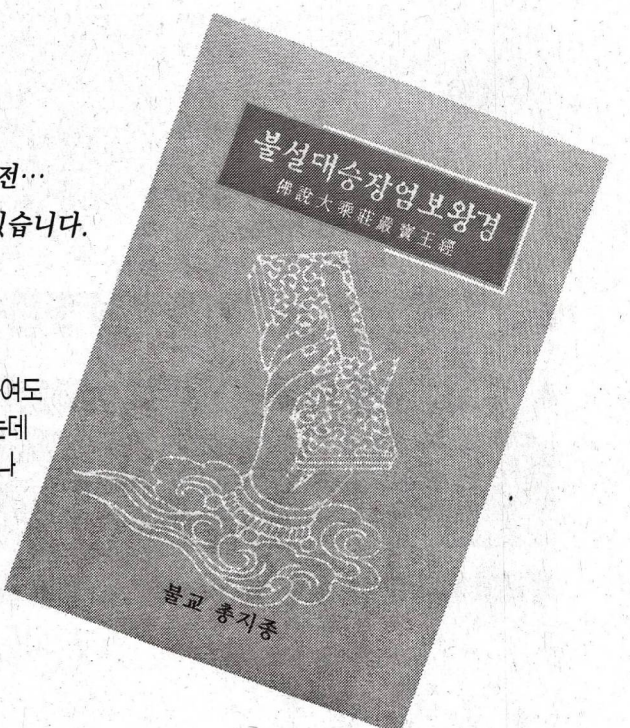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불교 총지종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교계소식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

윤원호, 안명옥 의원 발의 배경과 내용설명



◇10·27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원학 스님)는 1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열고 국 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 의 배경과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가 양당 특별법을 비교해 보완하는 형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안 의원은 11월 15일 각각 10·27특별법을 발의,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 목적을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인권신장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

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두 의원은 모두 10·27 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토 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정의와 국가의 의무, 보상금 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법난 피해자의 정의를 윤 의원은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신체·정신 상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한정하 면서, 안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와 함께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함으로써 신체·정신상 후유장애가 남아있 는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상이를 입 었던 자'까지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두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은 김봉석 변호사는 "10·27 법난의 정의 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에 국가기관 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

든 탄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5· 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개인 보상에 집중돼 있지만, 10·27 법 난 특별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계 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에 따른 회복 조치와 보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인 들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교계 의 전통과 맞지 않으므로 보상은 민법 에 의한 개인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소속된 종단에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당 시 파면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시 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문화 부장 수경 스님을 비롯해 국회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과 부회장 안홍준 의 원, 국회정각회 간사장 이영호 의원, 엄호성 의원, 신명 의원, 정광운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우선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공청회, 국방위원회 특별법 소위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이던 시간으로 부족하다 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 대다수는 조 계종단 측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특별 발원법회 등을 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태릉선수촌 법당 개원법회 봉행

국가대표 선수들 대거 참석, 불심 지피는 계기 마련



◇태릉국가대표선수촌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

"선수 여러분, 법당에서 마음 다지고 좋은 결과 내세요!"

2008 베이징올림픽을 6개월여 앞두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태릉선수촌 필승 주체육 관 1층 특설행사장에서 태릉국가대표선 수촌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태릉선수촌에 재개원한 법당 은 필승 주체육관 2층에 있으며 전체 평수는 약 70평이다. 여기에 한미음선 원이 포교원에 포교금으로 기탁한 3 억원을 투입, 기존의 낙후된 법당을 새로 꾸미고 탕화와 불상을 새로 여법 하게 모시는 등 노력끝에 다시 개원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태릉선수촌 법 당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심을 다잡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당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로, 중랑구사암연합회장 법 상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 스님, 포교부장 동범 스님, 포교연 구실장 도신 스님, 한미음선원 상임이

사 해근 스님,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 체육인불자 협회 이기흥 회장과 국 가대표 선수 등 1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체 육은 몸과 마음이 하나 가 돼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야이므로 부 처남께 발원하며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 포교원에서도 각 시도별 여러 선수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음선원 상임이사 해 근 스님은 "법당에서 혼자 고난의 시 간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선수 여 러분들이 모든 것을 넘어서 좋은 결과 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당 주지 현종 스님은 "육체적 기량, 정신적 안정,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근본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마라톤 올 림피크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를 비롯 해 여자양궁 이은경·여자유도 정 성숙 선수 등의 역대 '메달리스트들'도 참석, 이날 개원한 법당을 통해 신심 을 다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법회에서는 불상점 안,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공로패 수 여, 임명장 전달, 연의의식, 한미음선 원 합창단·니르바나필하모니오케스트 라 축하미당 등이 진행됐다.

이중 연의의식에는 여러 선수들이 직접 팔을 걷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생활상식

◀ 계란 찜에 구멍이 안 생기게 하려면

강한 불에서 달걀 찜을 하면 수 분이 증발해 버려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응고되기 시작한 달걀 속으로 파고 들어가 구멍이 생긴 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2 분 정도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한 불 에서 찜는 것이 포인트. 15-20분이 적당하며 너무 오래 찜면 수분이 증발해 부드러운 맛이 없어진다.

◀ 냉장고에 수납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무조건 모든 식품을 냉장고속에 단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식품 저장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험해 보았 겠지만 바나나는 겉게 변한다.빨 은 맛이 변한다. 곰팡이가 피는 계 절이 아니라면 냉장고에 넣지 않 는 것이 좋다. 냉을 경우에는 냉동 실에 넣는다.

◀ 맥주나 사이더는 거꾸로 세워 보관한다

맥주나 사이더를 보관할 때, 병 을 거꾸로 세워 두면 김이 빠지지 않아 시원한 음료를 맛을 즐길 수 있다. 또 병마개를 잘못 열었을 경 우 넘칠 때가 있는데, 병을 45 도 정도 기울이고 마개를 따면 상부 의 압력이 뚜껑 부근에 달 물리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다. 맥주를 마 실 때 거품을 너무 많이 내면 맛 이 떨어진다.

◀ 조미료를 넣는 순서는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된장의 순으로 넣는다. 이는 조림 등과 같 이 재료의 속까지 맛이 배이게 하 는 요리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미료 사용법이다. 제일 먼저 설탕 간장을 먼저 넣으면 간장에 함 유된 염분이 스며 들어가 재료를 단단하게 응고 시켜, 설탕의 단맛 이 배는 것을 방해한다.

◀ 간 감자 보관 방법

카레 또는 감자 조림등을 하다가 가 놓은 감자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그냥 냉장고에 넣거나 물 에 담구어 놓는데, 이렇게 하면 색 이 탈색 되거나 상하기 십상이다. 이럴 때에는 물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후, 그곳에 간 감자 를 보관하면 신선하게 보관 할 수 있다.

법음포교 결실 풍경소리 25집 발표

반주곡 포함 18곡 수록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스님)가 스물 다섯 번째 찬불동요 앨범을 최근 발표했다. 풍경소리는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장의 창작곡 앨범을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25집 앨범도 그 같은 지속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발표되는 풍경소리 음반은 불교관련 연수회와 강습회, 각 사찰의 어린이법회에서 교육용 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눈이 오는 날' '열 불하면 '잠자기 전 기도' '생일 축하 합니다' 등 9곡이 실렸고, 모든 곡의

반주도 함께 실렸다.

이종만 기획실장은 "의식찬불가 외 의 찬불가는 아는 불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은 스님과 불자들이 찬불가를 포교에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창작 찬불가 모든 곡을 홈페이지 (budsori.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 니 찬불가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 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지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경소리는 그동안 발표한 11 집부터 20집을 묶어 4장의 앨범으로 새롭게 제작해 보급한다.

어린이법요집·법회의식곡음반 발매

사찰에 할인 적용 판매



어린이법회 의식 표준안을 제시한 <어린이법요집>은 '어린이 집회가' '삼귀의' '어린이 오계' '새 범우 환 영가' 등의 의식곡을 비롯해 아이들의 생일에 부를 수 있는 '생일축하곡'을

새로 작곡해 실었다. 법회 의식곡을 기 존의 느리고 엄숙한 이미지를 탈피해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 한 점과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함께 사용해 빠르고 신나는 느낌을 더한 것 도 눈에 띈다.

또한 어린이들이 넘기기 쉽도록 스프링 제본법을 이용했으며, 종이도 닳 거나 손이 베이지 않도록 코팅을 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 실용성을 더했 다. 절하는 법과 사찰 기본예절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포교원은 전국 1500여개 사찰에 법 요집과 의식곡 음반을 배포했으며, 구 매를 원하는 사찰에는 할인가를 적용 해 판매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또 도마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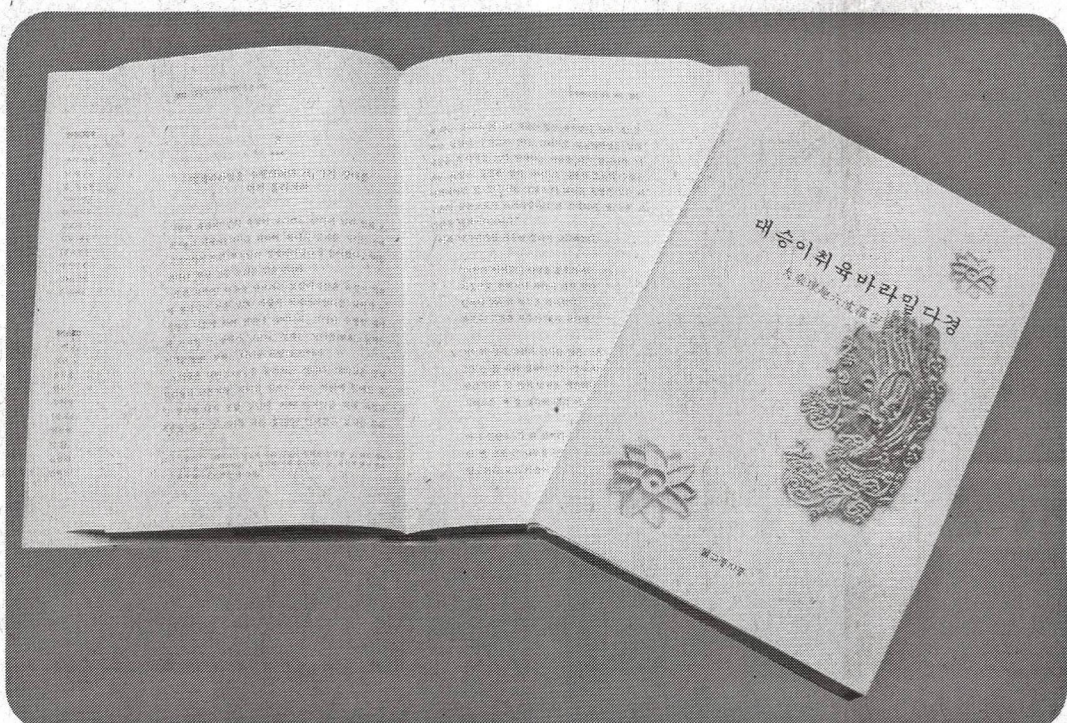
MBC '뉴스 후' 일부 목사 호화생활·사찰 매대 다뤄

종교인의 비과세와 호화생활이 또다 시 도마 위에 올랐다.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는 26일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 문제 와 함께 일부 종교인들의 호화사치 생 활을 다뤘다. 또 스님이 사찰을 사고 파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영했다.

방송 이후 '뉴스후' 홈페이지 게시 판 등 인터넷에는 이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방송은 교회를 키우 편법으로 사고 파는 현실 과 '떼돈을 벌수 있다'며 절을 내놓은 스님의 모습이 방영됐다. 또 신성한 자리에 있다는 성직자들의 수입과 호 화생활을 집중 조명했다.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불교총지종법장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총기 FOCUS /만다라 불사

만다라 -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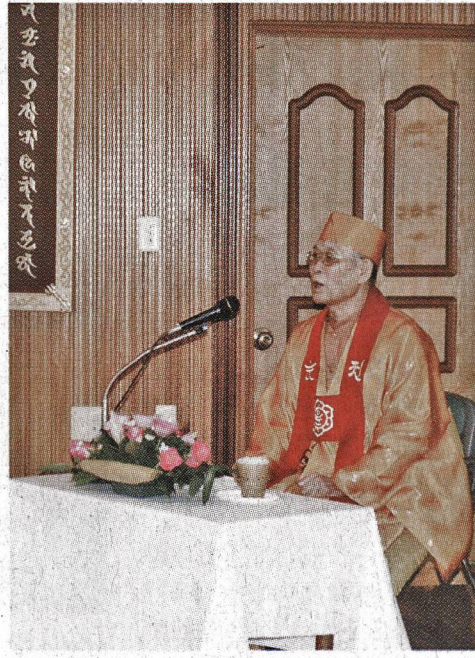
만다라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본질, 정수를 얻다'는 뜻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총기중 고유 불단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는 불단을 화려 장엄하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북돋아 주는 아름다운 불화

입니다.

2007년 춘계 강공회에서 만다라 봉안불사를 발표한 후 각 사원별로 잇따른 만다라 봉안불사가 봉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천 지인사와 서울 벽룡사 그리고 성남 법천사 만다라 불사를 화보로 꾸며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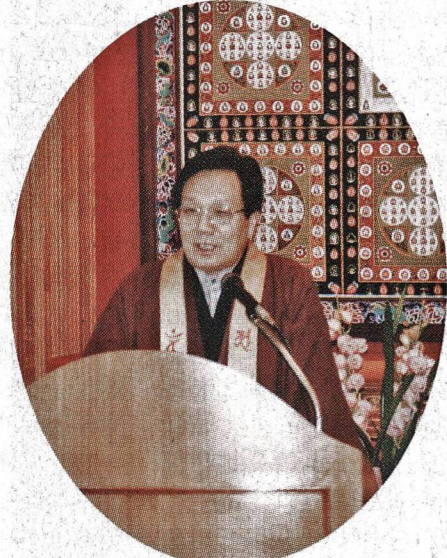
효강 종령 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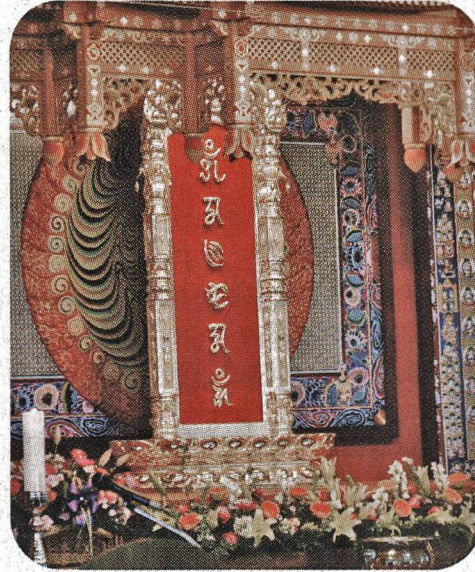
법천사 교도들



지인사 불사 동참 사부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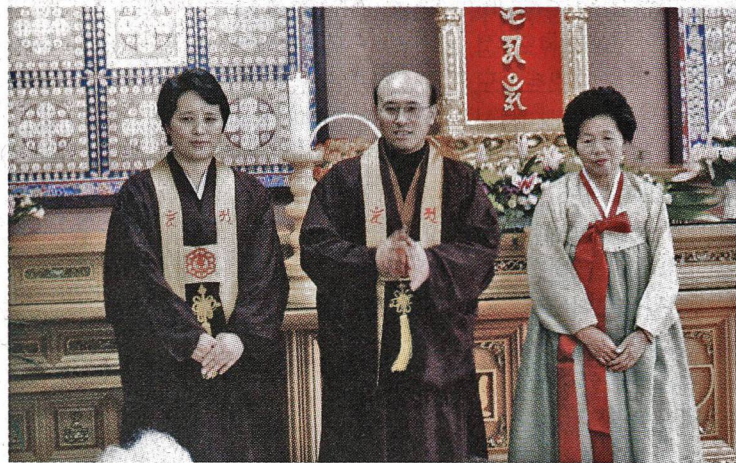
원송 통리원장



지인사 본존



벽룡사 불사 증령 헌화



벽룡사 주교와 신정회장



지인사 본존과 양부 만다라



법천사 주교와 신정회장단



지인사 주교와 신정회장



지인사 외부 전경



지인사 불사 후 기념촬영



법천사 외관



서울 경인 합창단



법천사 본존, 만다라 봉안불사 제막



법천사 운집 사부대중

총지종 서울경인 합창단 총화중 행사서 찬사

총화중 유지재단 선포, 남정 총무원장 법문집 출판기념회 초청



총지종 서울경인 합창단이 총화중 행사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여 2천여 사부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서울경인 합창단은 1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열린 '총화중 유지재단 선포식 및 남정 스님 출판기념법회'에 초청돼 찬불가와 법회의식곡 등의 음성공양을 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경인 합창단이 그동안 내외에서 보여 준 노래실력과 봉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한 총화중측이 특별 초청을 해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창종 50년을 맞은 대한불교 총화중이 유지재단 설립

을 선포,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총화중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제 부처님의 숭고한 사상을 떠나갈 종교법인으로서 크게 발돋움 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을 만났다"며 "더욱 힘찬 정진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중생구제의 일선에 서서 전법과 흥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화중 정정 동광 스님을 비롯해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 태고종 운산 총무원장,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김장실 문화관

광부 종무실장 등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상반기 49일불공 20일 입제

4월 8일까지 전국 사원서

불교총지종은 오는 20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총기 37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입제발사를 봉행한다.

종조법설집에는 "49일 불공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로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전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명해 있다.

신행제험 43



유복근 교도 (만보사)

거센 회오리 바람이 지나고 난 후 우리 절엔 차가운 공기만이 서원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성 정사님 모친 49세 날이라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꽃꽂이를 해달라는 전수님의 부탁 말씀. 부처님 오신 날에도 몇 번 씩 부탁 하시는 말씀에 또 거절 할 수가 없어서 "예" 하고만 대답하고 만보사에 갔을 때가 12월 월초 불공기간이었습니다.

공식시간을 지키시는 보살님들 7-8명이 전부였습니다. 만보사는 유난히 창문이 많고 보문산 줄기로 담을 했기에 엄청 춥고, 싸늘한 공기가 뽀얀 입김을 저절로 내뿜게 하는 그야말로 시베리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서원당입니다. 그런 서원당에 10명도 채 안되는 신도님들을 모시고 설법과 공식시간과 서원당을 지키시는 스승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신명이 안나실까...

부처님의 심부름과 법을 전하시는 지도자이기에 몇 분 안되는 보살님들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법하시는 모습 보고 저는 긴 한숨을 토해내게 했고 눈물이 핑 도는 순간 '빈자리를 한 자리라도 채우는 것이 나의 큰 보

시가 아닐까, 이 한 몸의 훈기가 스승님들께 훈훈한 훈기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만보사 신정회 총무일을 열심히 하다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 간 곳은 한마음 선원.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중 법공 정사님과 공덕승 전수님의 원력과 간절한 부탁 말씀이 제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수님의 간절한 꽃꽂이 부탁 말씀도 있었기에 얼마간 지켜 보기로 했습니다. 전수님의 꽃꽂이 솜씨도 보통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신 뜻이 있었던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신 스승님들께 마음속 깊이 정말 감사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싸늘했던 만보사를 올해 새해 불공때는 큰소

사를 알리고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셨 습니다. 놀랍게도 연꽃축제 하기 전 의아해 하고 걱정했었는데 정말 성공 리에 좋은 행사를 잘 치르게 되었고, 가슴 뿌듯함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스승님들의 뜨거운 원력이 우주법계에 까지도 알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 계에서도 화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서원당에 공식시간을 지키는 보살님들 하나를 빈자리가 채워지는 자리가 많아지고, 저희들은 스승님들께 뜨거운 원력과 예쁜 마음을 엿보게 되었고, 서원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과 말 없는 행동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의 놀라운 감화력이 신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빈자리를 채워 새해 불공을 가슴 뿌듯하게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한 정성과 서원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리고 스승님들께 힘찬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커다란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보사 신도 대표로 말하죠. 밤을 세워가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 하려고 연꽃등을 예쁘게 만들어 서원 당에 연속 2년을 오색찬란한 연등불을 올리고 서원을 빌고, 환희스런 맛을 처음 보게 해주신 날 신도님들의 감탄사...

또 만보사에서 연꽃축제를 한다고 광고 하셨을 때도 신도님들은 의아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잘 할 수 있을까 모두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스승님들의 정성과 서원과 헌신, 희생적인 지도자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시는 스승님을 보고 저희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아주 멀리 이웃 마을까지 총지종을 알리고 만보

고 싸늘하고 차가운 서원당 공기를 뜨겁게 바꿔놓으신 스승님들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극한 정성과 서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이 열리면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승님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스승님들을 모시게 해주신 부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올립니다. 또 오래 아주 오래 오래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왠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만보사 서원당이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불편함과 춥고 더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새해 불공기간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참으로 좋은 불공기간이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서원을 발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스승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2007년의 마지막 밤이 깊어 가고 있을 때 우리 가족 모두는 텔레비전과 시계를 반갑아 보며 다가 오는 새해를 맞이 했다. 재야의 종소리와 함께 드디어 새해의 새날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 소원을 빌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마음 속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과 각자 원하는 일이 잘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했다. 나라와 인종은 달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모두 새해를 맞이 하고 있을 것이다. 온 나라가 뒤집힐 듯이 떠들썩 하거나 아주 조용하고 차분 하거나, 그 겉모습은 달라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해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 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된다. 신정을 지내는 우리는 차례 준비 하느라 한 번도 새해맞이 이벤트를 하지 못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 되는 새해 맞이 하기 좋은 장소에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새해 아침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을 온 몸으로 받아 들여 보고 싶다. 생각만 해도 희망과 기대로 온 몸에 전율을 느끼고 힘이 샘 솟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새해맞이 축하로 와인 한잔씩 하며 덕담을 서로 주고 받았다. 이렇게라도 온 가족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감사하게 생

각한다.

흐르는 세월과 시간에 마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금을 그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인간이 영원한 시간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세기, 10세기, 20세기.....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짜맞춤을 해 놓았을까? 이 기막힌 짜맞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좀 더 계획적이고 시작과 끝맺음이 나누어 지고 늘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얼마나 축복 받은 우리들인가? 인간은 역시 위대하다. 인간이 아니면

맞이하더니.....세월은 왜 이다지도 빠르지는? 항상 내가 흐르는 세월을 주도 하며 성큼성큼 앞장 서서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지난 해에도 어김 없이 흐르는 세월을 쫓아 가다가 또 한 해를 보냈구나 하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진다. 이렇게 허탈하게 보낸 나에게는 새해는 찾아와 주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지난 해의 모든 것은 지난 해와 함께 접어 두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기막힌 짜맞춤을 해 놓은 먼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난 항상 광범한 보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다. 되도록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실제로 해 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이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이 다 궁금하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내에게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늘 항상 목말라 하고 있다. 나이와 함께 내 생각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나이 한 살 더 든다고 생각까지 한 살 더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언제쯤 나이와 함께 철이 들 것인가? 생각을 잡고 이만 자야겠다. 아침에 있을 설 차례를 위해서! 2008년 새해 첫 날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힘찬 한 해를 다짐하며

그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영원한 시간의 흐름에 이런 시작과 끝이 없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할까? 2007년을 마무리 하고 2008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찬 미래의 계획을 세워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 같이 차례 지내기 전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잠자리에 든 나는 잠은 오지 않고 지난해의 아쉬움이 마치 영화 필름 돌아 가듯 영상이 되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 간다. 지난해의 첫날도 기대와 설렘으로 보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또 새해 첫날을

만나라 세상

종교지도를 바꾼

'옴: 마니 빠드메: 흠: (om mani padme hum)'

20세기에 들어서서 불교는 서양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달라이 라마·승남·승신은 서양에 불교의 불을 붙인 동양의 스님들이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마오쩌둥의 침략, 베트남의 티엔한은 베트남 전쟁, 한국의 승신은 6·25동란, 모두 전쟁 속에 출현한 영웅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없었다면 이 분들은 영웅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달라이 라마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공산화하자마자 바로 티베트를 침략하여 접수해버린다. 티베트사람들을 100만 이상이나 학살한 마오쩌둥은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는 무지한 사람이다. 견디다 못한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디아로 망명한다. 그리고 인디아의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운다. 비극 속에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면 어찌(語弊)일까. 세계의 종교지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숨 가쁜 순간이었다. 포교사 아닌 포교사가 10만 이상 쏟아진 것이다.

그들은 사실 목숨을 건지려고 티베트로부터 망명한 사람들이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지붕 삼고 세계를 무대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세지만, 지나 깨나 할 새 없이 '옴: 마니 빠드메: 흠:(옴 마니 반메 흠)'을 중얼거리듯 읊조리며 산다. 세계의 종교지도를 바꾼 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옴: 마니 빠드메: 흠:'을 내 마음의 법구로 삼을 만하다.

그들은 생활이 종교이며 종교가 바로 생활이기 때문에 따로 전법을 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다. 입으로만 진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려고 정진하고, 보시를 베풀며, 생명을 존중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며 산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보면 포근하고 따뜻한 정감을 느끼며, 온화한 미소 속에 편안함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서양 사람을 불교로 끌어 모으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지극히 신뢰하고 존경하며,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아주 잘 따른다. 먼저 승가가 청정하기 때문에, 출가와 재가가 서로 신뢰하고, 자비를 베풀어가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 오체투지를 하면서 성지를 순례하는 티베트의 순례자를 보라. 그들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계율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생명을 걸고 수행을 한다. 말로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힘을 못 쓴다. 그런 종교는 향기가 없고 추하기까지 하다. 한국에서의 불교도 힘을 얻으려면, 벼슬에 목숨 걸지 말고 도(道) 닦는 데 목숨을 걸면 좋겠다.

-이평래 교수 / 불광 / 2007/12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방치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은 위한 후원을 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동동 8-8 ☎ : 051-552-0705

진언행자의 가족을 찾아서 | 대전 만보사 민순분 고도

“육자진언이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가인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곧바로 도리천에 올라가 부처님을 놓고 이레만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설법했다.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십지관경> 같은 불교경전 중에는 효행을 강조한 가르침을 많이 볼 수 있다. 유교경전인 <효경>에서도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했다.

불 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아름다운 효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이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대전 만보사로 향했다. 만보사가 위치한 곳은 대사동. 큰 절이 있었던 동리였을까. 절이 들어앉아 있는 곳은 보문산(普門山)이다. '보문'은 '보문시현(普門示現)'한다는 관세음보살과 관련있는 말이 아니던가. 절의 현판은 또 만보사(滿寶寺)다.

를 하며 살았다. 고된 일 때문이었던지 고부간 갈등도 심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철도공무원이었던 남편이 '82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갔다. 큰 딸이 중 2였고, 막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청춘벽력같은 일이 있고 나서 근 일 년여간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민 보살은 말했다. 어린 자순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커갈지, 잘

았다. 그때 진언수행을 만났다. 앞 집 보살이 만보사엘 가보라고 권하더라.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밤에 불을 끄고 잠을 못 잤습니다. 다른 일이 또 생기지나 않을까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옴 마니 반메 흠'을 하면서 무서운게 사라졌습다. 매사에 활기차고 대담해 지더라구요”

진언 수행을 하면서부터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고, 병든 시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는 와중에도 틈을 내 새벽이나 한 밤 중에라도 서원당을 찾아가 정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국수도 팔고 보건전문대 앞에서 살던 방을 쪼개 하숙집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여러 명의 학생을 맡혀 주고 빨래해 주고 연탄나르고... 하루 3시간도 안 자고 살았어요. 그렇게 밥 먹고 살았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에 위로와 희망

민순분 보살이 1983년 입교한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만보사와의 인연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스승들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초창기 삼성동의 단칸 서원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만보사를 일궈 냈던 총지와 스승님을 비롯해 법공, 지성 스승님들의 가르침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 받았다.

“그저 살려는 생각에 처음 만보사를 찾아 왔을 당시엔 총지와 스승님이 계셨어요. 다른 말씀없이 '시어머니께 참회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설법하실 때면 모든 말씀이 저를 꾸짖는 소리로 들리더라구요. 그때부터 지성으로 시어머니께 참회하고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49일 참회불공을 올렸습니다. 회향하는 날 꿈에 돌아간 남편이 다니던 회사직원들과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골 발령났다'고 하는 사라지더라구요”



만보사 서원당에서 활짝 웃는 민순분 보살.

그 날 이후 모든 과보가 내 지은 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극진하게 모실 수 있었다 한다.

민순분 보살은 그동안 겪었을 신산고초와 애환 그리고 기쁨을 이렇게 말하곤 환하게 웃었다.

“살아 온 것을 돌아보면 눈에선 눈물이 나는데 입에선 웃음이 납니다. 불공공덕인지 조상님들께서 도우신 건지 어려운 일들을 잘 지낼 수 있었고 4남매도 모두 예쁘게 자라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언 수행이 제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종당엔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윤우채 기자



중보편집팀, 만보사 통신원과 함께.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통리원 전화 02)552-108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